

村家救急方の 郷藥名 研究

孫 炳 胎*

〈目 次〉

- | | |
|-----------------|--------------------|
| I. 서 論 | II. 郷藥名の 연구 검토와 자료 |
| III. 村家救急方に 대하여 | IV. 郷名表記의 解讀 |
| V. 結 論 | VI. 참고문헌 |

1. 序 言

인류는 古代로부터 천연물을 약용자원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그 藥源은 식물, 동물, 광물로서 오늘날 그 수는 5,000여종에 달하고 있다. 郷藥은 중국에서 中藥이라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郷藥(韓藥)으로 불리어 온 전통 郷物이다.¹⁾

민족전통의 민간 한의약方文인 전통의료서에서는 救急을 요할때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향약을 가능한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本章 곧, 약재로 쓰인 식물, 동물, 광물의 漢字名에 대하여 漢字를 차용하여 이두식 표기로 고유어를 나란히 적고 있다. 향명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口語를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표기법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그 당시의 국어 실상을 파악하여 향명표기의 성격과 국어어휘와 음운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또한 국어의 식물, 동물, 광물의 古語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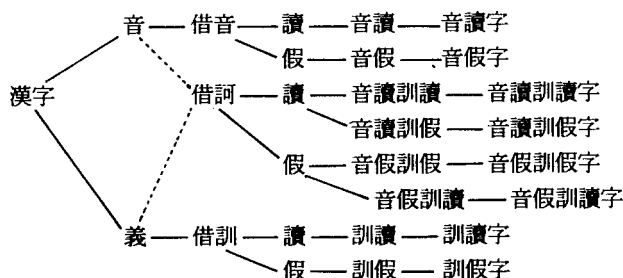
*영남어문학회, 영남대학교 한국어 연구회, 대구언어학회 회원.

1) 정보섭(1990), 「圖解郷藥(生藥)大事典」, 참고.

을 적잖이 재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연구 방법으로는 차자체계의 기본형인 音, 訓, 訶, 讀, 假의 원리에 의하고²⁾ 촌가구급방과 다른 민족전통의 민간한약 方文을 참고하여 차자표 기법을 살핀다. 또한 지역방언을 동원한다는가 차자표기와 한글표기를 대응시켜 보아 語源규명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漢語들이 차용되어서 차자로 나타나는 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같이 音을 차용하면 차음표기가 되며 義를 차용하면 차훈표기가 된다. 음과 의를 다 차용하면 차사표기가 된다. 위의 원리에 의하여 생성된 차자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音讀字: 차자를 음으로 읽고 그 원뜻도 살림

音假字: 차자를 음으로 읽되 표음부호로만 씀

音訓讀字: 차자를 음과 훈으로 읽고 그 원뜻도 살림

音讀訓假字: 차자를 음으로 읽고 그 원뜻도 살리고 훈으로 읽되 표음부호로만 씀

音訓假字: 차자를 음으로 읽되 표음부호로만 씀

2) 남풍현(1986)은 音, 訓, 讀, 假의 네원리에 의해 분류하고 정철주(1987)는 音, 義, 訶의 세원리에 의해 분류하고 있음.

音假訓讀字: 차자를 음으로 읽되 표음부호로만 쓰고 훈으로 읽고 그 원뜻도 살림.

訓讀字: 차자를 훈으로 읽고 그 원뜻도 살림.

訓假字: 차자를 훈으로 읽되 표음부호로만 씀.

위의 것을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音讀字, 音訓讀字, 訓讀字 — 表意文字性

音假字, 音訓假字, 訓假字 — 表音文字性

音讀訓假字 — 表意表音性

音假訓讀字 — 表音表意性

위에서 音讀訓假字, 音假訓讀字 등은 차자어휘의 합성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Ⅱ. 郷藥名の 연구 검토와 자료

향약명의 차자표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주로 의료서의 해석을 논하는 도중에 언급된 것들이 많고, 이들 향약명이 국어학의 자료, 국어연구의 자료로써 차츰 중요시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본고와 관련된 것만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소창진평(1932), (1933)은 처음으로 「本草綱目啓蒙」, 「郷藥採取月會」及「郷藥集成方」에 나타난 朝鮮動植礦物名을 해석하고 있다. 소창진평(1940)에서는 향약구급방을 국어학의 자료로 처음 소개하고, 방중현(1948)은 향약구급방을 국어연구의 자료로 취급하고 향명표기 연구가 고려초 내지 신라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을 시사했다. 이덕봉(1963)은 향약구급방의 方中郷藥目에 나오는 180여종의 약재에 대해 原植物, 原動物을 규명하고 어원, 어휘의 고증에도 노력을 기울여 비전공인으로서 시도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기문(1963b)은 향약구급방이 계림유사와 15세기 자료에 걸치는 3세기반의 공백을 잇는 13세기중엽의 고려 공동어의 중요 자료임을 강조하고 향명의 가치를 재확인 했다. 김두중(1955), (1963)은 한국의학사에 향약구급방을

해설하고 도서 제5호에 해제까지 덧붙이고 있다. 남풍현(1981)은 향약구급방의 향명을 중심으로 차자표기법 체계를 다른 의료서와 비교하여 밝히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본격적인 향명연구의 시도가 된 듯 싶다.

양주동(1942), 이승녕(1955), 이기문(1959), (1963a), 방중현(1963), 심재완, 조규설(1966), 안병희(1971), (1978), 고정희(1984), 김완진(1985), 손병태(1989)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향명의 표기체계, 어원규명, 전통의료서의 서지적 연구자료해설, 독음처리, 향명의 분류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안병희(1978)는 유일하게 촌가구급방의 자료를 소개하고 향명에 대해 10개씩 묶어 향명의 이두식표기와 한글표기를 비교 고찰하고 있다. 한글표기에서 구개음화등 음운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준을 밝히고 있다.

향명 128항 중 한자어와 이두식표기 한글표기 모두가 빠진 것이 20자, 이두식 표기만 빠진 것이 1자, 한자어와 그 일부가 빠진 것이 6자, 한글표기 일부가 빠진 것이 1자, 한자어와 이두식표기가 빠진 것이 1자, 한글과 이두식표기가 빠진 것이 1자, 모두 합하여 30항목은 완전히 빠지거나 불완전한 항목이다. 98항목의 향명표기에 대해 간헐적으로 간략히 해설을 붙이고 있다. 차자표기와 한글표기를 같이 취급하여 대응관계를 찾고 있으나, 한글표기는 상당히 후대의 것이라 여겨지기에 자료를 따로 취급하여 연구해야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민족 전통의 민간 한의학 의료서의 국어학적 자료로 취급될만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鄉藥救急方(초간본 1237~1251, 중간본 1417)
- ② 鄉藥採取月令(1431)
- ③ 鄉藥集成方(1433)
- ④ 救急簡易方(1489)
- ⑤ 瘡疹撮要(1517)
- ⑥ 簡易辟瘟方(1525)
- ⑦ 村家救急方(원간 1538, 중간 1571~1573)
- ⑧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嘉靖版 154, 崇禎版 1636)
- ⑨ 分門瘟疫易解方(1542)
- ⑩ 痘瘡經驗方(현종 13년)

- ⑪ 診解救急方 (1607, 선조 40년)
- ⑫ 診解痘集要 上·下 (1608, 선조41년)
- ⑬ 診解胎產集要 (1608, 선조 41년)
- ⑭ 診解腦藥症治方 (영조년간)
- ⑮ 辟疫神方 (1613, 광해군 5년)
- ⑯ 辟瘟新方 (1653)
- ⑰ 原本東醫寶鑑 탕액편1~3, (선조, 광해군)
- ⑱ 本章學(1962), 本章綱目 (1596, 明代)
- ⑲ 名醫別錄
- ⑳ 物名類考
- ㉑ 物名攷(순조), 物譜(1820, 순조2년)
- ㉒ 方藥合編
- ㉓ 濟衆新編.

위의 자료들은 본고의 연구 대상인 촌가구급방 향명의 어휘차자표기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의료서의 국어학적 연구에 중요한 구실을 하리라 믿는다.

Ⅲ. 村家救急方에 대하여

촌가구급방은 金正國(1485~1541)이 高陽郡西의 芒河에서 지날때 편찬한 책이다.³⁾ 간행연대는 李友閔이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었던 1571년 3월과 1573년 3월 사이에 함경도 함흥에서 重刊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형태는 목판본 1책인데, 책크기는 세로 24.5cm, 가로 17.7cm이며 총장수는 목록5장, 본문 47장 跋 2장으로서 모두 54매로 되어 있다. 책의 앞뒤로 마멸되고 부식되어 매우 불완전 하다. 版式은 四周單邊에 半郭이 세로 18.2cm, 가로 15cm이며 有界 10행 20자내외의 註雙行으로 되어있다. 版心은

3) 이 사정은 金正國자신이 쓴 跋文과 형 安國이 쓴 그의 墓誌(죽은 사람의 이름, 관위, 행적, 자손의 이름, 生死, 葬년월일 등을 기록한 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余負累居村……接方書之劑無村則不如得鄉藥而救於是盡奈

黑口上下内向黑魚尾로 되었는데 版心題인 大方과 張次가 있다. 종이는 닥나무종이인데 16세기 刊本の 한 특징인 이은 종이가 더러 섞여 있다.⁴⁾ 이책의 내용은 첫머리에 목록이 약1장반에 걸쳐 실려지고 이어서 鄉名(목록2a~4a)이라 하여 본문의 方文에 나오는 약재 128종을 3단으로 들고서 쌍행으로 차자와 한글로써 그 고유어를 표기해 놓았다. 본문은 大方科와 婦人門으로 나누어서 모두 132항의 方文을 기술하였다. 그런데 129항의 方文은 목록에 失欠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설명된 방문은 131항 뿐이다. 끝에 행서로 된 跋文과 위에 말한 간행 관여자의 列銜이 있다. 향명에 등록된 本章 곧 약재는 완전히 판독되는 것이 98종이다. 印面이 없어진 것은 일련번호만 보이고 缺이라 표시하되 남아있는 글자가 있으면 덧붙여 두면 다음과 같다. (1~128)

1. 萎蕤豆應仇羅/등구라 2. 雲母/돌비늘 3. 膝膝 牛無邑/쇠무릎 4. 薯蕷山藥/마 5. 龍膽草 觀音草 6. <缺> 7. 苦蕒天叱他里/하늘타리 8. ~9. <缺> 10. 祭茆綱草/그물풀

11. 百合根 犬伊日根/개나릿불히 12. 前胡 射香菜/사향치 13. 地榆 苳菜과의 14. 三凌<缺> 15. ~19. <缺> 20. 柴胡<缺>

21. 麥門冬 冬兒沙里根/겨우사릿쌀히 22. 升麻 雉脚/쇠장가리 23. 防風屏風葉/평풍노물 24. 黃芩 裏朽草/속서근풀 25. 天南星 豆也麻造作只/두여마조자기 26. 浪毒 五毒蜀只/오독도기 27. 虎杖根 甘除根/감네쌀히 28. 桑螵蛸 桑上尙衣阿之家쑤남괴당의아지집 29. 石決明 生鮑殼싱끗집지 30. <缺> 쌀

31. 赤箭<缺>/슈자히엄 32. 玄蓼 凌霄草/릉소초 33. 桑寄生 桑木冬兒沙里쑤나모겨우사리 34. 遠志 阿只草/아기풀 35. 蒲黃 蒲槌黃粉/부도쫓우회누문분 36. 白鮮皮 檢花根/검꽃불히 37. 葶藶<缺>/두릅의 나이 38. 白頭翁 注之花/주짓꽃 39. 白薇 磨阿尊又名徐長鄉/마이존쑤서당경 40. <缺>

41. ~44. <缺> 45. 澤瀉 牛耳菜/쇠귀노물 46. 荒蔚子 目非也叱/눈비앗 47. 蛇床子 蛇道乙羅叱비암돌랏 48. 茵陳 加外作只/가외자기 49. 免絲子 鳥麻/새삼 50. 酸醬 叱科阿里쑤와리여름

4) 안병희(1978), 언어학 제3호, p.192.참조.

51. 紅草 寥花/엷취 52. 大薊 大居塞/큰거시 53. 小薊 羅邑居塞/남거시 54. 半夏 雉毛奴邑甞의 모릅 55. 郁李仁 山梅子/산미조씨 56. 覆盆子 末應德達只/명덕달기 57. 胡荽 高柴/고쇠 58. 蜈蚣 眞乃/진내 59. 酸棗仁 山大棗/산대초 60. 蜀椒 川椒/전초

61. 班苗 青加乙外청갈외 62. 京三凌 牛夫月乙/쇠부돌 63. 冬麻子 吐乙麻/돌삼 64. 白欬 犬矣吐邑/가히툼 65. 香薷 奴也只/노아기 66. 忍冬草 金銀花/금은화 67. 磁石 之南石/디남석 68. 惡實 牛蒡子우윙씨 69. 〈缺〉加土沙伊/가스새 70. 羊蹄根 所乙串/솔웃

71. 燈心 古乙心/골속 72. 馬乙勃馬夫乙茸물불버섯 73. 茗舌茶雀舌茶/작설차 74. 海〈缺〉庵木皮/암나모거피 75. ~77. 〈缺〉 78. 〈缺〉音猪毛/〈缺〉슴도티털 79. 〈缺〉骨 末起骨/미괴뼈 80. 蠶退 蠶子紙又名〈缺〉/누웨알스러난조히

81. 胡桃 唐楸子/당추조 82. 鶯栗殼 陽古末/양구미 83. 甜瓜 眞瓜/츄의 84. 假蘇 鄭介/덩가 85. 自然同 生銅/산굴 86. 菴間子 眞珠蓬/진주봉 87. 瞿麥 石竹花/석족화 88. 薄荷 英生/영싱 89. 鴉鵒油 沙月鳥油/사드새지름 90. 蒼耳 叱古마리/툃고마리

91. 天麻 赤箭根/적전불히 92. 蒿蓼 地新草/승의노물 93. 香附子 沙草根/새춧물히 94. 紫菀 迨伊湯/티알 95. 水萍 蛙食/머구리밥 96. 地骨皮 枸杞子根/구구조불히 97. 苳苳子 草牛黃/초우황 98. 天圓子 天乙他里/하놀타리 99. 漏蘆 絶穀大/절곡대 100. 〈缺〉

101. 〈缺〉千金木脂/천금목지 102. ~103. 〈缺〉 104. 〈缺〉多士麻/다스마 105. 〈缺〉흐름줄기 106. 蟲實 馬蘭子/부스공 107. 篇蓄 百節草/온미티 108. 馬燕零 冬兒冬乙羅/귀방울 109. 雀瓮 衰也只/소야기 110. 鷄頭實 居塞蓮/거쇠련씨

111. 鶴膝 狐矣尿/여의오줌 112. 芡實 菱栗/마람 113. 竹茹 青竹皮/댓겍지글근것 114. 露蜂房 蜂家/버럭집 115. 淡竹葉/소음덴넙 116. 鬱金 深黃/심황 117. 天門冬 118. 疾藟子蠟居塞/남가시 119. 苦蔘 板麻/너삼 120. 枸杞子

121. 五加皮 122. 白附子 白波串/바곳불씨 123. 石斛 124. 續斷 125. 水蛭 巨末里/거마리 126. 續隨子 千金子/천금조 127. 牽牛子 三日草 128. 桔梗 道乙阿叱/돌앗

IV. 鄉名表記의 解讀

촌가구급방 향명의 해독에 있어서 항목배열의 순서는 목록(2a~4a)에 실

려 있는 鄉名의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해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의 제시는 (가) (나) (다) 항으로 나눈다. (가) 항은 촌가구급방의 향명표기를 제시하고 (나) 항에는 (가) 항과의 비교대조에 필요한 다른 의료서의 차자표기 자료를 제시한다. (다) 항에는 15세기 이후의 한글표기 자료를 제시해 참고로 삼는다.

1. 萎蕤(黃精)

(가) 豆應仇羅

(다) a. 둥구라

b. 둥굴네(物譜10)

C. 둥구리(物名考)

〔豆〕 音假字 ‘두’음의 표기

〔應〕 음가자 ‘ㅇ’未音의 표기

〔仇〕 음가자 ‘구’음의 표기

〔羅〕 음가자 ‘라’음의 표기

위와 같이 ‘豆應仇羅’는 ‘둥구라’의 표기이다. 모양을 나타내는 ‘둥그랗다’의 형용사에서 ‘둥구라’의 향명을 표기한 듯함. ‘둥글래’, ‘둥글레’로 표기된 곳도 있음.

2. 雲母

(가) 石鱗

(다) 돌비늘

〔石〕 훈독자 ‘돌’의 표기

〔鱗〕 훈독자 ‘비늘’의 표기

돌의 무늬가 고기비늘 모양으로 된 것에서 훈독한 것임.

3. (膝膝)牛膝

(가) 牛無邑

(나) a. 牛膝草(향구)

b. 牛無樓邑(향집 78,6b)

(다) a. 쇠무릅

b. 쇠무릎디기 (동의, 탕2, 39b)

c. 우슬초 (향구)

〔牛〕 훈독자 ‘쇼’의 표기

〔無〕 음가자 ‘무’의 표기

〔邑〕 음가자 ‘립’의 표기

위의 것은 향명이 漢語名을 직역하여 번역차용하고 있다. 이 향명이 번역차용이라 하더라도 이 약초의 줄기에 마디모양이 흡사 쇠무릎같이 보이는 외형적 속성과 부합하므로 쉽게 보급되어 대중화될 수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⁵⁾

4. 薯蕷

(가) 山藥

(나) a. 𪚩支 (향구)

b. 卽山藥 (향집 78.11a)

(다) a. 마

b. 마서, 마여 (훈몽上, 14a)

위는 ‘白朮’을 ‘山草’, ‘蜀淑’을 ‘산추 (난대)’라 부르는 것과 껀를 같이 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마, 산약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山藥은 독특한 것으로 한글표기와 관계가 없다.

5. 龍膽草 (龍膽艸)

(가) 觀音草

(다) a. 관음초

b. 초롱담 (物譜10)

c. 관음풀 (物名考67)

〔觀〕 음독자 ‘관’의 표기

〔音〕 음독자 ‘음’의 표기

〔草〕 음독자 ‘초’의 표기

5) 동의보감의 牛膝에 대한 설명이, ‘處處有之有節如鶴膝又如牛膝狀以此名之’라 적혀 있다. 남풍현 (1981), p.103 참조.

6) 拙稿 (1989), p.3에서 이러한 名詞를 ‘漢字語式表記名詞’라 한 바 있다.

용담은 절주변의 낭떠러지에 자생하여 사찰을 연상하여 불상과 관련지어서 관음초라는 것을 음독자라 할만하다.”⁴⁾

7. 苦蕒

(가) 天叱他里, 天圓子

(나) a. 天叱月伊(월령2월), (항집 79, 4a)

c. 天原乙(향구)

(다) a. 하늘타리

b. 하늬드래(간이방1, 22a)

c. 하늘타리불취(동의, 탕3, 2a)

d. 하늘타리 瓜蕒 天花粉(物譜10)

[天] 혼독자로 ‘하늬ㅎ’의 표기

[叱] 음가자로 ‘ㅅ’음 표기 속격조사 ‘의’

[他] 음가자로 ‘타’의 표기

[里] 음가자로 ‘리’ 표기

표기대로 읽으면 ‘하늬ㅎ타리’이라 음운론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탈락되어 ‘하늘타리’가 된다. ‘天叱月伊’보다 연철된 표기이다. ‘하늬’은 天瓜, 天花粉, 天圓子에서 유래된 것이고, 그 과실이 다래와 비슷한데서 주어진 것으로 하늘의 다래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하늘타리’로 와변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다.

10. 綦苳

(가) 綦草

(다) 그물풀(취꼬리 망초)

[綦] 혼독자의 ‘그물’의 표기

[草] 혼독자 ‘풀’의 표기

현재는 망초라고 불려지고 있음.

11. 百合根

(가) 犬伊日根

(나) a. 犬伊那里根(향구 中, 2)

- b. 犬乃里花(항구, 方文)
- c. 犬伊日(월령, 2월)
- d. 介伊日伊(항집 79, 9a)
- (다) a. 개나릿부리휘
- b. 개나릿불휘(간이방 2, 111a)
- c. 개나리불휘(동의, 제중)
- [犬] 훈독자 '가히'의 표기
- [伊] 음가자 'ㅣ' 음의 표기
- 犬의 훈독말음 첨기.
- [日] 훈가자 '날'의 표기
- [根] 훈독자 '불휘'의 표기

犬伊(介伊)의 伊는 말음 첨기자로 그 쓰임이 수의적이다. 이 항명은 유개넘어인 '日(那里)'를 가축의 항명으로써 수식하는 구조로서 종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유개넘어는 식용가치가 높은 것이고 새로 조어진 종개넘어는 식용가치가 없거나 떨어지는 것이다. 또 야생성을 가지고 있다. '那里, 乃里'가 '日/날'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山丹/산날이 춤날이'(物譜), '番山丹/개날이, 뱃합'(物名攷), 여기서 '百合/개나리, (산나리)는 長音 '개-나리'로 발음되고 봄에 노랗게 피는 '連翹花/개나리'는 短音 '개나리'로 발음된다.

12. 前胡

- (가) 射香菜
- (다) a. 사향치 b. 전호(物譜10)
- [射] 음독자 '샤'의 표기
- [香] 음독자 '향'의 표기
- [菜] 음독자 '치의 표기

오늘날은 전호라 불리운다.

13. 苳菜

- (가) 地榆
- (다) a. 따외

b. 슈박나물(物譜10)

〔地〕 혼독자 'ㅍ'의 표기

〔榆〕 음가자 '외'의 표기

21. 麥門冬

(가) 冬兒沙里根

(나) a. 冬乙沙伊(향구 中 25)

b. 冬沙伊(월령, 2월)

(다) a. 겨으사랏썰히

b. 겨으사리불휘(동의, 탕2, 40a)

c. 겨우사리 凍靑(物譜10)

d. 맥문동

〔冬〕 혼독자 '겨술ㅎ, 겨술'의 표기

훈가자 '겨'의 표기

〔兒〕 음가자 '으'의 표기

〔沙〕 음가자 '사'의 표기

〔里〕 음가자 '리'의 표기

〔根〕 혼독자 '썰히'의 표기

겨우사리의 이름은 생장의 특성에서 나온 것으로 맥문동이 '四季不凋'의 常綠冬靑(凍靑)인에서 유래된 것이다.

'冬(겨술)'과 '生(살-)'의 복합어를 이루고 있다.⁷⁾

22. 升麻

(가) 雉脚

(나) a. 雉脚本, (향구上, 16)

b. 雉鳥老草(월령 2월)

(다) a. 씨장가리

b. 승맛불휘 (간이방1, 26a)

7) 동의보감에 '葉靑似莎草 四季不凋根作連珠形似橫委類故名委門冬'라 적혀 있다.

c. 쇠덜가릿불휘 (동의, 탕2, 41a)

d. 쇠골나모

〔雉〕 훈독자 '쇠/씨'의 표기

〔脚〕 훈독자 '가랭이/갈/가리'의 표기

升麻는 삼갈이 위로 쪽 곧게 길다랗게 자라는 것으로 꿩의 긴 다리에 비유한 향명이다. 경상도 방언에서 쪽 곧은 회초리를 '피장가기/꼬장가리/끼장가리/꼬챙이'라고 한다. 아마도 승마의 고유어 잔영인듯 싶다. '雉'에는 비식용성 외에도 야생성과 지시성의 속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동물적 은유이다. 동의보감의 升麻項에서 이 향명의 어원적인 의미의 속성을 찾을 수 있다.

'其葉如麻故名爲升麻……用細則如雞骨' (탕2, 41a) 여기서 승마근을 가공한 것이 雞骨(雉骨)과 같다고 했다. 李時珍은 升麻에 대하여 '其葉似麻其性上升故名'이라 하였다.

23. 防風

(가) 屏風葉

(다) 屏風늑물

〔屏〕 음독자 '평/병'의 표기

〔風〕 음독자 '풍'의 표기

〔葉〕 훈가자 '늑물'의 표기

24. 黃芩

(가) 裏朽草

(나) a. 所邑朽斤草 (향구상, 12)

b. 精朽草 (향구 (3))

c. 裏腐草 (월령, 2월)

d. 裏朽斤草 (월령, 3월) (향집 79, 11b)

(다) a. 속서근플(촌가, 우역방 11a, 동의 7, 제중)

b. 솜서근플불휘(간이방2, 107a)

c. 속석은 플 (物名攷)

〔裏〕 훈독자 '속'의 표기

〔朽〕 훈독자 '석/석은'의 표기

〔草〕 훈독자 '풀'의 표기

'精'은 훈독자 '숨'의 표기로 '精朽草'은 역시 '숨서근풀'의 표기이다.

精에서 裏로 교체되어 더욱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다. '裏朽草 / 숨서근풀'과 '精朽草 / 숨서근풀'은 精과 裏이 類意관계에 있는 한자로 훈이 동일한데서 교체될 수 있다. '所邑朽斤草/숨서근풀'은 음가자로 표기되어 있다. 훈독자와 음가자는 수의적으로 선택되는 것이어서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약구급방보다는 촌가구급방이 보다 表意的인 표기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⁸⁾ 이 약재의 내부 뿌리는 썩어 속이 비어 있다. 그래서 腐腸, 空腸의 別名이 있다.⁹⁾

25. 天南星

(가) 豆也麻造作只

(나) a. 豆也次火 (향구上, 14)

b. 豆也麻次作只 (월령, 2월)

c. 豆也未注作只 (향집79, 14a)

(다) a. 두여마조자기

b. 두야머주자깃불휘 (간이 방1, 1b)

c. 두여머조자기 (동의, 탕3, 18b)

〔豆〕 음가자 '두'의 표기

〔也〕 음가자 '야/여'의 표기

〔麻〕 음독자 '마'의 표기

〔造〕 음가자 '조'의 표기

〔作〕 음가자 '작/자'의 표기

〔只〕 음가자 '기'의 표기

위 (나)항의 차자 假字의 선택에서는 상당히 수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天南星의 별명을 虎掌이라 한다.

8) '升麻'에 대해 '雉脚'(촌가)와 '雉鳥老草'(향구)에서도 그러하다.

9) '其腹中皆火爛故名腐腸'(향약집성방) 참조.

‘其根四畔有圓芽看如虎掌故有此名’(唐의 蘇恭)

26. 浪毒/蔞茹

(가) 五毒獨只

(나) a. 五得浮得 (향구)

b. 五獨毒只 (향집)

(다) 오독도기

〔五〕 음독자 ‘오’의 표기

〔毒〕 음독자 ‘독’의 표기

〔獨〕 음가자 ‘도/독’의 표기

〔只〕 음가자 ‘기’의 표기

27. 虎杖根

(가) 甘除根

(다) 김네썰히

〔甘〕 음독자 ‘감’의 표기

〔除〕 음가자 ‘네’의 표기

〔根〕 훈독자 썰히’의 표기

28. 桑螵蛸

(가) 桑上倘衣阿之家

(다) 뽕남기당의아지집

〔桑〕 훈독자 ‘뽕남’의 표기

〔上〕 훈독자 ‘우하’의 표기

문맥에 따라 처격, 속격이 들어감.

〔倘〕 음독자 ‘당’의 표기

〔衣〕 음독자 ‘의’의 표기

〔阿〕 음가자 ‘아’의 표기

〔之〕 음가자 ‘지’의 표기

〔家〕 훈독자 ‘집’의 표기

위(가)는 번역차용어적인 향명의 차자이다.

29. 石決明

(가) 生鮑殼

(나) a. 生鮑甲 (향구中2)

b. 生鮑 (월령, 3월) (향집82, 22a)

c. 九孔螺 (物名考)

(다) a. 싱포겍지

b. 싱포겍질 (동의, 탕2, 7b)

c. 싱복겍질 (物名考)

d. 싱포겍질 (物譜13)

〔生〕 음독자 '상'의 표기

〔鮑〕 음가자 '포/보'의 표기

〔殼〕 훈독자 '겍지'의 표기

石決明의 현대어는 전복(全鰓)이다. 本章綱目の 石決明의 釋名에 '決明千里光以功名也九孔螺以形名也'라 적혀 있다.

위 표기는 음가자만을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음독자 훈독자를 사용한 것은 어원의식의 발로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원의식과 표의성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명은 표음성과 표의성을 모두 고려하는 양면성을 지니되 표음성이 표의성보다는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玄蓼

(가) 凌霄草

(나) a. 心回草(향구上, 16)

b. 能消草 (향집79, 8a) (월령)

c. 玄參(동의, 제증, 향약, 물보)

(다) 룡소초

〔凌〕 음가자 '룡'의 표기

〔消〕 음가자 '소/쇼'의 표기

〔草〕 음독자 '초'의 표기

룡소초는 어느때 소멸되었는지 알 수 없고 지금은 현삼으로 통칭된다. 현

삼은 안정제로서의 기능이 있는 약물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한국 한자어일 수도 있다.

33. 桑寄生

(가) 桑木冬兒沙里

(다) 썩나모겨⁹사리

〔桑〕 훈독자 ‘뽕’의 표기

〔木〕 훈독자 ‘나무’의 표기

〔冬〕 훈가자 ‘겨’의 표기

〔兒〕 음가자 ‘아’의 표기

〔沙〕 음가자 ‘사’의 표기

〔里〕 음가자 ‘리’의 표기

34. 遠志/萎小草 (物譜)

(가) 阿只草

(나) 非師豆刀草 (향구) (월령, 8월)¹⁰⁾ (다) a. 아기플

b. 아기플불취 (동의, 탕2, 42a)

〔阿〕 음가자 ‘아’의 표기

〔只〕 음가자 ‘기’의 표기

〔草〕 훈가자 ‘플’의 표기

동의보감에서는 遠志를 一名小草라고 하였다. ‘아기/阿只’는 지시적인 뜻으로 이 ‘小’에 대응한다. 애기플은 전체적으로 모양이 작고 가련한 꽃이 피는데서 명명된 듯하다.

35. 蒲黃

(가) 蒲槌黃粉

(나) a. 蒲槌上黃粉 (향구上 14 中 20,22)

10) 남풍현(1981), p.106에서는 ‘非師豆刀草’를 ‘비스두도플’, 이덕봉(1963), p. 6에서는 ‘비사두갈플’이라 해독하고 있음.

- b. 助背槌 (향구)
- c. 卽蒲槌上黃粉 (향집 78, 2a)
- (다) a. 부도좇우희누른분 (촌가)
- b. 부들마치우희누른ㄴㄹ (간이방2, 89b)
- c. 부들조갯ㄴㄹ (우역방, 9a)
- d. 부들쑥ㄴㄹ (동의, 탕2, 456)
- e. 부들방망이 (물명고)
- [蒲] 훈독자 '부들/부도'의 표기
- [槌] 훈가자 '좇'의 표기
- [黃] 훈독자 '누르-'의 표기
- 문맥에 의하여 '누른'으로 변이
- [粉] 음독자 '분'의 표기

부들의 외형이 武士의 棒杵와 같으므로 蒲槌라는 俗名이 나왔다.¹¹⁾ 즉, 棒杵/槌 이것은 방망이, 마치, 좇 등으로 원추형을 통칭으로 가진다. 蒲黃의 향명은 助背槌일 가능성이 많다. 경상도 방언에 조배무시(작고둥근무우)가 있어 조배 마치와 대응되기 때문이다.

36. 白鮮皮

- (가) 檢花根
- (다) 검화불히
- [檢] 음가자 '검'의 표기
- [花] 음독자 '화'의 표기
- [根] 훈독자 '불히'의 표기

38. 白頭翁

- (가) 注之花
- (다) a. 주짓쑥

11) · 至夏抽梗於叢葉中花抱梗端如武士棒杵故俚俗謂蒲槌…….
· 蒲黃鄉名蒲槌花土黃粉香蒲鄉名次乙皆 (향약집성방)

b. 할미꽃 (物譜10)

〔注〕 음가자 '주'의 표기

〔之〕 음가자 '지'의 표기

〔花〕 훈독자 '꽃'의 표기

39. 白薇

(가) 磨阿尊又名徐長卿

(다) 마아존또서당경

〔磨〕 음가자 '마'의 표기

〔阿〕 음가자 '아'의 표기

〔尊〕 음가자 '존'의 표기

45. 澤瀉

(가) 牛耳菜

(나) 牛耳菜 (향구, 월령, 향집)

(다) a. 쇠귀나물

b. 쇠귀나물불취 (동의, 탕2, 41b)

c. 쇠귀나물 (物名考)

〔牛〕 훈독자 '쇼'의 표기

〔耳〕 훈독자 '귀'의 표기

〔菜〕 훈독자 '나물'의 표기

집성방의 '其葉似牛舌'에서 '牛舌'과 '牛耳'는 외형상 같다. 또한 蘇頌은 澤瀉의 잎을 '牛舌'과 비슷하다고 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잎이 牛耳와 비슷하다고 보아서 澤瀉에 대한 향명은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존재하여 쇠귀나물로 불려져 왔다고 볼 수 있다.

46. 荒蔚子/益母草 (物譜10)

(가) 目非也叱

(나) a. 目非阿次 (향구上, 5)

b. 目非也次 (향구(1))

c. 目非也叱 (월령, 4월)

- (다) a. 눈비얏
 b. 눈비엿 (간이방 2, 73b)
 c. 암눈비얏빠 (동의, 탕2, 39b)
 d. 눈비약이 (物譜考)
 e. 눈버약이 (物譜10)
 〔目〕 혼독자 '눈'의 표기
 〔非〕 음가자 '비'의 표기
 〔也〕 음가자 '야'의 표기
 〔叱〕 음가자 末音 'ㅅ/ㅈ'의 표기

荒蔚 및 益母草의 명칭에 대하여는 향약집성방의 아래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此草及子，皆荒盛密蔚，故名荒蔚，其功宜於婦人及明目益精，故有益母之稱’
 ‘암눈비얏은 익모초가 부인약으로 有功함으로 뒤에 암을 부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금도 익모초는 여자에게 좋다고 통용되고 있다. 위의 (가)와 (나)에서 ‘阿’→‘也’ 즉 ‘a→ya/i-’와 같은 변이된 어형을 보이므로 촌가구급방이 음운론적으로 변이된 어형을 반영한 표기로 설명된다.

47. 蛇床子

- (가) 蛇道乙羅叱
 (나) a. 常食蛇狀菜子 (향구중, 21)
 b. 蛇音置良只菜實 (향구 (2)
 c. 蛇音置良只 (월령, 4월)
 d. 蛇都羅叱 (향집 78, 26a)
 (다) a. 비얏돌랏
 b. 비얏도랏빠 (동의, 탕2, 48a)
 〔蛇〕 혼독자 ‘비얏’의 표기
 〔道〕 음가자 ‘도’, 혼가자 ‘두’, 동사어간 ‘두-’에서 온것.¹²⁾
 〔乙〕 음가자 말음첨기 ‘ㄹ’표기
 〔羅〕 음가자 ‘라’의 표기

12) 남풍현(1981), p.46.

〔叱〕 음가자 말음첨기 ‘ㅅ’의 표기

‘一道乙羅叱(돌랏)’은 ‘一置良只/두러기’의 어원이 상실되면서 민간어원에 의하여 그와 유사한 語形인 ‘道乙羅叱’으로 바뀐 것이다. 語形의 유사성에 이끌린 유연성의 변화이다.¹³⁾

48. 茵陳

(가) 加外作只

(나) a. 加火左只 (향구)

b. 加火(左)只 (월령, 4월)

c. 加外左只 (집성방 78, 27b)

(다) a. 가외자기 (더외자기)

b. 더위자기 (동의, 탕3, 1a)

‘가외자기’와 같이 촌가구급방의 한글표기는 후대의 것이라 오류를 범하고 있어 차자표기가 고유어의 語形을 잘 유지하고 있다. ‘加火左只’에서 ‘加外左只/加外作只’로 표기의 발달을 보이고 있다. 즉 13세기와 15세기 사이의 ‘더블자기/더불자기/더외자기/더위자기’의 발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경상도 방언에서의 ‘더위’를 ‘더부’, ‘더뷔’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 잔영이 있는 듯하다.

49. 免絲子/菟絲子

(가) 鳥麻

(나) a. 鳥伊麻 (향구)

b. 鳥麻 (월령9월) (향집 78, 6a)

(다) a. 새삼

b. 새삼(훈몽上, 8b)

c. 시삼 (物譜10)

〔鳥〕 훈독자 ‘새’의 표기

〔麻〕 훈독자 ‘삼’의 표기

‘鳥/새’는 지시적인 개념을 그 비유의 특성으로 하고 있다. 유개념을 나타

13) 남풍현(1981), p.83. 참조.

내는 麻의 크기보다는 은유에 의하여 지시하는 종개념의 크기가 더 작은 것이다. 또한 야생성도 그 비유의 속성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새삼은 삼보다 작은 야생의 향약명이다. 새삼은 삼씨처럼 생긴, 새가 까먹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맺히는 약용식물일 것이다. 삼씨를 까먹는 새를 경상도에서는 아직도 열새(방울새)라고 부르고 있다. 삼보다 작은 것을 새삼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 잎, 모양이 식용의 냉쿨콩과 같고 외형이 작으며, 작은 콩 모양의 꼬투리가 열리는 식물을 새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같다.

50. 酸醬

(가) 𪛗科阿里

(다) 𪛗와리여름

〔𪛗〕 훈가자 두음 ‘ㅅ’표기 (𪛗分/췌과 같은 용례)

〔科〕 훈가자 ‘과/고’의 표기

〔阿〕 훈가자 ‘아/와’의 표기

〔里〕 훈가자 ‘리’의 표기

酸醬의 익은 열매를 따서 씨를 제거하고 입에 대고 붙면 ‘파,파’소리가 난다. 의성어 ‘파’에 어원이 있다.

51. 紅草

(가) 寥花

(다) 옛뛰(여뛰)

52. 大薊

(가) 大居塞

(다) 큰거식

〔大〕 훈독자 ‘큰’의 표기

〔居〕 음가자 ‘거’의 표기

〔塞〕 음가자 ‘ㅅ’의 표기

52. 小薊

(가) 羅邑居塞

(나) 蠟居塞(구급방122)

(다) 남거식

〔羅〕 음가자 '나'의 표기

〔邑〕 음가자 말음첨기 'ㅂ'의 표기

54. 半夏

(가) 雉毛奴邑

(나) a. 雉矣毛考邑 (향구上, 8) '4'

b. 雉矣毛立 (향구(4))

(다) a. 췍의 모릅

b. 췍모릅불휘 (간이방1, 1b)

c. 췍물웃 (동의, 제증, 방약)

d. 췍괴무릇 (物名考)

e. 괴무릇 (物譜10)

〔雉〕 훈독자 '췍/췍'의 표기

〔毛〕 음가자 '모'의 표기

〔奴〕 음가자 '로/노'의 표기

〔邑〕 음가자 'ㅂ'말음 표기

半夏는 지금 반하로 통칭하고 있다.

55. 郁李仁

(가) 山梅子

(나) a. 山吡伊腸羅次 (향구上, 18)

b. 山梅子 (월령, 5월) (집성방20, 34b)

(다) a. 산믹즈씨

b. 뽕이스랏씨又名산믹즈 (동의, 탕3, 40b)

〔山〕 음독자 '산'의 표기

14) 소창진평은 위(나)항에서 최후의 邑(읍)字를 사용한 것을 보고 古時에 뽕(膝)으로 칭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梅〕 음독자 '믹'의 표기

〔子〕 음독자 '자'의 표기

지금은 산이스랏으로 부른다.

56. 覆盆子/縵田蔗 (物譜8)

(가) 末應達只

(다) a. 멍덕달기

b. 검은멍덕딸기 (物譜8)

〔末〕 음가자 '마/머'의 표기

〔應〕 음가자 '응/ㅇ'말음 표기

〔德〕 음가자 '덕'의 표기

〔達〕 음가자 '달'의 표기

〔只〕 음가자 '기'의 표기

覆盆子/멍덕달기, 懸鉤子/나무딸기, 蛇每/쌍딸기, 蓮蓼子/곰딸기 등도 있다.

57. 胡荽

(가) 高柴

(다) 고식

〔高〕 음가자 '교'의 표기

〔柴〕 음가자 '식'의 표기

58. 蛇蛻

(가) 眞乃

(나) a. 眞乃(향구 3)

b. 之乃(향구上, 5)

c. 眞乃(향집 83, 23b)

(다) a. 진내

b. 진애(동의)

c. 진의(物名考)

〔眞〕 음가자 '진'의 표기

〔乃〕 음가자 '나'의 표기

59. 酸棗仁

(가) 山大棗

(나) a. 三₃₃大棗 (향구)¹⁵⁾

b. 三₃彌尼大棗(월령, 9월) (집성방79, 6b)

(다) a. 산대초

b. 예춧씨(간이방1, 114a)

c. 뫇대초 (동의, 탕3, 27b)

〔山〕 음독자 '산'의 표기

〔大〕 음독자 '대'의 표기

〔棗〕 음독자 '조/초'의 표기

60. 蜀椒/川椒

(가) 川椒

(나) a. 眞椒

b. 椒皮 : 蜀椒(집성방80, 30a)

(다) a. 전초

b. 조핏여름 : 川椒(간이방2, 336)

c. 초피나모여름 : 蜀椒(동의, 탕3, 35b)

〔川〕 음가자 '전'의 표기

〔椒〕 음독자 '조'의 표기

蜀椒는 胡椒, 川椒, 棗椒, 巴椒, 漢椒, 崖椒등으로 착종해 불리고, 경상도 방언으로는 '난의', '산추'라 불린다.

'분디 曰山椒'(訓蒙)

'棗椒 난의 卽山椒'(物名考)

61. 班苗

(가) 青加乙外

15) 남풍현(1986), p.85. 참조.

(다) 청갈외

〔靑〕 음독자 ‘청’자 표기

〔加〕 음가자 ‘가’자 표기

〔乙〕 음가자 ‘ㄹ’말음첨기

〔外〕 음가자 ‘외’자 표기

62. 京三稜

(가) 牛夫月乙

(나) a. 結次邑笠根 (향구下, 3)

b. 結叱加次根 (향구(4))

c. 每作只根 (월령, 2월) (향집79, 52b)

d. 牛夫月乙 (월령, 9월)

(다) a. 쇠부들

b. 미자깃불휘 (간이방2, 5a)

〔牛〕 훈독자 ‘쇼’ 표기

〔夫〕 음가자 ‘부’ 표기

〔月〕 음가자 ‘달’ 표기

〔乙〕 음가자 말음 ‘ㄹ’첨기

牛夫月乙은 전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서민을 위해서 표기한 증거가 보인다.

63. 冬麻子

(가) 吐乙麻

(다) 둘삼

〔吐〕 음가자 ‘도/토’ 표기

〔乙〕 음가자 ‘乙’말음표기

〔麻〕 훈독자 ‘삼’ 표기

64. 白歛

(가) 犬矣吐邑

(cf) a. 犬伊刀叱草 (향구)

- b. 犬刀叱草 (향구)
- c. 犬刀次草 (향구)
- d. 加海吐 (월령, 3월)
- e. 犬矣吐叱 (월령, 9월)

- (다) a. 가히툼
 b. 가희툼 (동의, 탕3, 17a)
 [犬] 훈독자 '가히'자 표기
 [衣] 음가자 '의' 표기
 [吐] 음가자 '토' 표기
 [邑] 음가자 'ㅂ'말음첨기

白歟은 '蔓生枝端有五葉根似天門冬'이라 하여 그 오엽이 복잡하게 분열하여 흡사 그 외형이 개의 발톱같이 생긴 것에 비유한 향명표기다.

65. 香薷

- (가) 奴也只
 (나) 노아기
 [奴] 음가자 '노' 표기
 [也] 음가자 '아/야'표기
 [只] 음가자 '기'표기

66. 忍冬草

- (가) 金銀花
 (나) a. 금은화
 b. 인동초/윤동호 (경북군위지역어)
 [金] 음독자 '금'표기
 [銀] 음독자 '은'표기
 [花] 음독자 '화'표기

67. 磁石

- (가) 指南石
 (나) 磁石(향구)

- a. 디남석
- b. 지남석(동의, 물명고)
- c. 자석

이것은 아두명이 한자 향명화 된 것이다. 모두 음독자 표기다.

68. 惡實

(가) 牛蒡子

(나) 우윙빠

〔牛〕 음가자 '우'의 표기

〔蒡〕 음독자 '방'(윙)의 표기

위는 우병>우병/우방>우윙>우영의 오늘에 이른 것이다. 차자 '蒡'에서 'ㅁ'→'우'의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다. 버 병 병

70. 羊蹄根

(가) 所乙串

(나) a. 態月背(향구 上·5)

b. 所乙古叱(우역방, 3a)

(다) 솔웃(촌가) (우역방)

〔所〕 음가자 '소'의 표기

〔乙〕 음가자 'ㄹ'의 표기

〔串〕 음가자 '긔/긔/웃'의 표기

本草綱目에 '根似長蘆菴而莖赤'라 적혀 있어 羊蹄의 줄기는 붉다는 것이다. 또 '莖節間紫赤'이라고 되어 있으며, 계림유사에 '紫日質背', 소루쟁이의 紫赤의 속성이 진달래의 紫赤色 속성과 일치하므로 소루쟁이를 態月背/곰돌비, 진달래를 晝月背/진돌비라고 하는 것이 수궁이 간다.

71. 燈心

(가) 古乙心

(나) 골속

〔古〕 음가자 '고'의 표기

〔乙〕 음가자 말음 'ㄹ'의 표기

〔心〕 훈가자 ‘속’의 표기

72. 馬乙勃

(가) 馬夫乙茸

(나) 물 불버섯

〔馬〕 훈독자 ‘말’의 표기

〔夫〕 음가자 ‘부’의 표기

〔乙〕 음가자 ‘ㄱ’참기

〔茸〕 훈독자 ‘버섯’의 표기(?)

73. 萆舌茶

(가) 雀舌茶

(나) 작설차

〔雀〕 음독자 ‘작’의 표기

〔舌〕 음독자 ‘설’의 표기

〔茶〕 훈독자 ‘차’의 표기

80. 蠶退

(가) 蠶子紙

(나) 누웨알스려난조히

〔蠶〕 훈독자 ‘누웨’ 표기

〔子〕 훈가자 ‘알’ 표기

〔紙〕 훈독자 ‘조히’ 표기

81. 胡桃

(가) 唐楸子/楸子 (향구下, 2)

a. 당추주

b. 당츄주 (간이방2,36a)

〔唐〕 음독자 ‘당’의 표기

〔楸〕 음독자 ‘추’의 표기

〔子〕 음독자 ‘자’의 표기

당추/호도 '唐'은 '狄/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부가된 것이다. 漢語에서 외국원산을 '胡'로 표시한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唐'으로 표시한 것이다.

82. 鷺粟殼

(가) 陽古未

(나) 양구미

〔陽〕 음가자 '양'의 표기

〔古〕 음가자 '고/구'의 표기

〔未〕 음가자 '미'의 표기

양고미는 양구비는 거쳐 '양귀비'로 변하였는데, 흔히 '楊貴奴'로 적는 것은 民間語源이다.

83. 甜瓜

(가) 眞瓜

(나) 참외

〔眞〕 훈독자 '참' 표기

〔瓜〕 훈독자 '외' 표기

84. 假蘇

(가) 鄭介

(나) 덩가

〔鄭〕 음가자 '덩' 표기

〔介〕 음가자 '가' 표기

85. 自然銅

(가) 生銅

(나) 산굴/산골

〔生〕 훈독자 '산' 표기

〔銅〕 훈독자 '구리/굴' 표기

86. 菴藺子

(가) 眞珠蓬

(나) 진주봉

위는 한자어름의 다른 이름이다. 흔히 개제비쭉이라 불리운다.

87. 瞿麥

(가) 石竹花

(나) 鳩目花(향구)

a. 석죽화

b. 석죽화(동의, 탕3, 7b)

〔石〕 음독자 ‘석’ 표기

〔竹〕 음독자 ‘죽’ 표기

〔花〕 음독자 ‘화’ 표기

위는 漢語기원의 음독자 표기 차용이다. 흔히 패랭이꽃이라 한다.

88. 傳荷

(가) 英生

(나) 영성

〔英〕 음독자 ‘영’ 표기

〔生〕 음독자 ‘성’ 표기

89. 鵝古鳥油

(가) 沙月鳥油

(나) 사드새지름

〔沙〕 음가자 ‘사’ 표기

〔月〕 음가자 ‘다/덱’ 표기

〔鳥〕 훈독자 ‘새’ 표기

〔油〕 훈독자 ‘지름’ 표기

90. 蒼耳

(가) 吐叱古个里

(나) a. 升古个伊 (향구 上, 5)

b. 刀古休伊 (향구 (2))

c. 升古休伊 (월령, 4월)

(다) a. 툇고마리

b. 뒷고마리 (간이방2, 94b)

c. 뚫고마리 (훈몽上, 8b)

d. 되고마리 (월령)

e. 독고마리 (物名考)

경상도방언에서는 ‘도꾸말대’라 한다.

〔吐〕 음가자 ‘도/토’ 표기

〔叱〕 음가자 ‘ㅅ’ 표기

〔古〕 음가자 ‘고’ 표기

〔마〕 음가자 ‘마’ 표기

〔里〕 음가자 ‘리’ 표기

‘蒼耳=棄耳=卷耳’라는 것으로 보아 ‘독’대면 말아버리는 성질의 식물, 혹은 이것을 삶아 종기난 곳에 씻으면 독을 빨아내어 씻은듯이 낫는다 한다. 즉, 독을 말아내는 식물로 연상할 수 있다.

91. 天麻

(가) 赤箭根

(나) 격전불히

〔赤〕 음독자 ‘적’ 표기

〔箭〕 음독자 ‘전’ 표기

〔根〕 훈독자 ‘불히’ 표기

92. 蒿蓼

(가) 地新草

(나) 승의늑물

〔地〕 훈가자 ‘승의’ 표기

〔新草〕 훈가자 ‘늑물’ 표기

93. 香附子

(가) 沙草根

(나) 새춧불휘

〔沙〕 음독자 '사/새' 표기

〔草〕 음독자 '초' 표기

〔根〕 훈독자 '불휘' 표기

94. 紫菀

(가) 迨伊遇

(나) a. 迨加乙(향구上, 16)

b. 他加乙(향구(3))

(다) a. 티알

b. 티알불휘(간이방2, 78b)

c. 텃알(동의, 탕3, 6b)

13세기의 '티갈'이 15세기에는 '티알'로 변화함

95. 水萍/浮萍

(가) 蛙食

(나) a. 魚矣食(향구中, 19)

b. 魚食(월령 3월)

(다) a. 머구리 밥

b. 개구리밥

동의보감의 水萍에 대한 설명에 '葉下有一點如水沫'이라 한것이 '머구리 밥'이라고 명명하게된 이 향명의 비유의 속성이다.

96. 地骨皮

(가) 枸杞子根

(나) a. 구구춧불휘

b. 고구추

〔枸〕 음가자 '구' 표기

〔杞〕 음가자 '기/구' 표기

〔子〕 음독자 '즈' 표기

107. 篇蓄

(가) 百節草

(나) a. 온미디

b. 온미듭 (동의, 탕3, 19)

〔百〕 혼독자 ‘온’ 표기

〔節〕 혼독자 ‘미듭’ 표기

108. 馬燕零

(가) 冬兒冬乙羅

(나) 귀방을

차자표기와 한글표기는 관련이 없다.

109. 雀瓮

(가) 衰也只

(나) 소야기

〔衰〕 음가자 ‘소’ 표기

〔也〕 음가자 ‘야’ 표기

〔只〕 음가자 ‘기’ 표기

110. 雞頭實

(가) 居塞蓮

(나) 거식련씨

〔居〕 음가자 ‘거’ 표기

〔塞〕 음가자 ‘식’ 표기

〔蓮〕 음독자 ‘련’ 표기

111. 鶴膝/鶴虱(항구)

(가) 狐矣尿

(나) 狐矣尿(월령: 無時)

(다) a. 여의오줌

b. 여의 오좁풀(간이방2, 38a)

c. 둥겁이풀(物譜2)

d. 독덥이나물(物名攷)

〔狐〕 혼독자 ‘여수’ 표기

〔矣〕 음가자 ‘의’ 표기

〔尿〕 혼독자 ‘오좁’ 표기

本草書에 蟾蜍蘭이니 蝦蟇이니 하는 별명에서 둥겁이풀, 혹은 경상도 방언에서 뚜꺼비찰밥이라고 한다. 혹은 그 잎이 담배잎 비슷하여 ‘담배풀’이라고도 한다.

112. 菱實

(가) 菱 栗

(나) 마람

〔菱〕 혼독자 ‘마람’ 표기

〔栗〕 혼독자 ‘밤’ 표기의 생략

菱栗은 ‘마름밤’이 되어야 하나 ‘밤’을 생략 한글표기하고 있다. 경상도 방언에 ‘말밤’이라고 어휘가 있으므로 차자표기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119. 苦蔘

(가) 板麻

(나) 板麻(향구中, 5)(월령2월)

(다) a. 너삼

b. 뽀너삿불휘(간이방1, 98a)

c. 뽀너삼불휘(동의, 탕3, 2b)

d. 여삼대(방언)

〔板〕 혼독자 ‘널’ 표기 혼가자 ‘너’ 표기

〔麻〕 혼독자 ‘삼’ 표기

122. 白附子

(가) 白波串

(나) 바곳불휘

- 〔白〕 한글 표기 없음
 〔波〕 음가자 ‘바’ 표기
 〔串〕 음가자 ‘곶’ 표기

125. 水蛭

- (가) 巨末里
 (나) 거마리
 〔巨〕 음가자 ‘거’ 표기
 〔末〕 음가자 ‘마/머’ 표기
 〔里〕 음가자 ‘리’ 표기

127. 牽牛子

- (가) 三日草
 (나) 黑丑(物譜)
 (다) a. 견우자/견우화(牽牛花)
 b. 나팔꽃
 차자표기와 한글표기가 관련이 없다.

128. 桔梗

- (가) 道乙阿叱
 (나) 道羅次(향구上, 8)
 (다) a. 돌앗
 b. 도랏(간이방2, 65a)
 〔道〕 음독자 ‘도’ 표기
 〔乙〕 음가자 말음 첨기 ‘ㄹ’
 〔阿〕 음가자 ‘아’ 표기
 〔叱〕 음가자 말음첨기 ‘ㅈ/ㅊ’ 표기

이상으로 혼가구급방의 목록에 나오는 향명을 해독해 보았다. 촌가구급방과 향약구급방 등 기타 의로서 간에는 일치하는 표기가 있는 반면, 상이한 표기도 있다. 異表記를 몇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하자.

첫째, 어휘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漢語名	향약구급방(기타)	촌가구급방
1. 薯蕷	𦵑支/‘마디’ 또는 ‘말’	山藥/마
2. 郁李仁	山叱伊賜羅次/빛이스랏	山梅子/산미조
3. 玄參	心回草/심회초	凌霄草/릉소초
4. 遠志	非師豆刀草/비사두가플	阿只草/아기플
5. 京三稜	結次邑笠(根)/믹좁간(불휘)	牛夫月乙/쇠부들
6. 羊蹄根	熊月背/곰돌비	所乙串/솔웃
7. 水萍	魚矣食/고기인밥	蛙食/머구리밥
8. 瞿麥	鳩目花/구목화	石竹花/석죽화
9. 升麻	雉鳥老草/씨도로플	雉脚/씨장가리

(1) (2)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이고 (3)은 차용어내에서 조어법을 달리한 차이이고 (4) (5) (6) (7)은 고유어내에서 조어법을 달리한 차이이고, (8)은 국어화한 차용어와 생경한 차용어간의 차이이다. (9)는 고유어와 차용어의 차이이다.

촌가구급방이 향약구급방 등 다른 의서보다 생활에 밀착된 일상적인 어휘 선택을 하고 있다.

둘째, 생략표기에 의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생략표기는 차자표기법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漢語名	향약구급방	촌가구급방	해독
牛膝	牛膝草	牛無邑	쇠무릅
麥門冬	冬乙沙伊	冬兒沙里	겨♀사리
半夏	雉矣毛老邑	雉毛奴邑	뿔의모름
蒼耳	刀古休伊 (升古마伊)	吐叱古々伊	도고말이
桔梗	道羅次	道乙阿叱	돌앗/도랏

(1)은 ‘草’의 생략, (2)는 ‘乙’의 생략과 ‘伊/里’의 이형태 표기, (3)은

矣의 생략, (4)는 'ㄹ'음 표기 생략, (5)는 말음침기의 수의성을 보여주는 말음침기의 차이, (2) (4)는 '이/伊' 앞에서 'ㄹ'음표기가 생략되었으며 '阿叱加伊'와 '阿次加伊(葺麻子)'에서처럼 'ㅣ'모음을 가진 음절에서의 생략이란 제약이 발견된다.

V. 結 語

지금까지 村家救急方の 鄉藥名의 어휘차자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향약명의 차자표기는 音假字, 訓讀字, 音讀字, 訓假字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민간어원적인 表意性이 반영된, 부분적으로 번역된 차용어도 상당히 있다.

훈독자의 체언을 들면, 石/돌ㅎ, 牛/쇼, 天/하늘ㅎ, 綱/그물, 草/풀, 犬伊/가히, 根/불휘, 地/따, 冬/겨울, 雉/씨(의), 脚/갈(가리), 裏/속, 桑/뽕, 上/우ㅎ, 家/집, 殼/껍질, 木/나무, 蒲/부들, 花/꽃, 耳/귀, 菜/나물, 目/눈, 蛇/뱀, 鳥/새, 麻/삼, 大/큰, 馬/말, 蠶/누에, 紙/조히, 瓜/외, 眞/참, 茶/차, 蛙/머구리, 食/밥, 生/산, 銅/굴(구리), 狐/여우(여의), 尿/오줌, 竹/대, 油/지름, 蜂/벌의, 家/집, 綿/솜, 板/널, 百/온, 葉/넙(넙), 節/먹뚝, 菱/마름, 栗/밤, 등이 있고, 훈독자의 용언에는 '朽/석-', '黃/누르-'가 있다. 체언의 훈독자는 명사만이 나타나고 용언은 형용사의 어간만訓을 보이고 있다.

音讀字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風/풍, 麻/마, 五/오, 毒/독, 倘/당, 衣/의, 生/싱, 草/초, 粉/분, 花/화, 射/샤, 香/향, 菜/치, 屏/평, 甘/감, 山/산, 梅/미, 子/자, 大/대, 棗/조, 靑/청, 金/금, 銀/은, 花/화, 指/디(지), 南/남, 石/석, 勞/방(왕), 舌/설, 唐/당, 楸/추, 竹/죽(죽), 英/영, 箭/전, 沙/사(새), 蓮/련(연), 雀/작.

音假字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豆/두, 應/응(ㅇ), 仇/구, 羅/라, 無/무, 邑/읍(읍, ㅂ), 叱/ㅅ(의, ㅈ), 他/타, 里/리, 伊/이, 兒/ㅇ(아), 榆/외, 豆/두, 也/야(여, 아), 造/조, 作/작(자), 只/기, 獨/도(독), 除/데, 阿/아, 之/지, 鮑/포(보), 凌/릉, 消/소, 沙/사, 檢/검, 注/주, 磨/마, 尊/존, 非/비, 乙/ㄹ, 加/가, 外/외, 居/거, 塞/시, 毛/모, 奴/로(노), 末/미(마), 達/달, 高/고, 柴/시, 眞/진, 乃/나,

川/전, 夫/부, 月/달, 吐/도(토), 矣/의, 奴/노, 牛/우, 所/소, 古/고(구), 串/곶(곶, 옷), 陽/양, 未/미, 鄭/정, 介/가, 个/마, 枸/구, 杞/기(구), 波/바, 巨/거.

訓假字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日/날, 葉/낙물, 冬/겨, 槌/ض, 叱/두음ㅅ, 科/과(고), 阿/아(와), 里/리, 心/속, 子/알, 新草/낙물

郷名은 그 표기에서 表音性和 表意性を 모두 고려하는 양면성을 지니되 表意性보다는 表音性を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음가자가 많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식물명칭 앞에 犬-, 牛-, 雉-, 馬-, 狐- 등의 동물이름을 붙여 그 식물의 형태나 용도를 동물과 관계짓고 있으며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과 야생성을 나타내는 뜻에서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郷名列를 들면 犬伊日根, 牛無邑, 牛耳菜, 雉脚, 雉毛奴邑, 馬夫乙茸, 狐矣尼 등이 있다.

우리의 향약명은 상당한 수가 漢語에서 왔음을 보이나, 중국의 本草學이 우리의 郷藥名에 깊숙히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생적인 고유어가 방언과 민간차원을 겹들여 많이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가구급방은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의 향약명과 같이 민간차원의 것이기에 향약구급방과 같은 왕명에 의한 통일된 의료서의 향명보다는 서민들에 밀착된 차자어휘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어 식물명의 古形, 국어의 음운사, 어휘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휘의 편린을 찾을 수 있었다. 해독되지 않은 차자어휘의 의미와 어원규명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나 계속되는 '의료서의 차자어휘연구'에서 밝혀지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권재선(1980), “吏讀文字 ‘叱’考”, 남광우 박사 회갑기념 논총.
 남풍현(1975), “漢字借用 表記法の 發達”, 국어학 논문집 7·8.
 박은용(1966), ‘〈矣〉借表記에 대하여’, 연구논문집16, 대구 효성여대.
 서정범(1989), 「우리말의 뿌리」, 서울: 高麗苑.
 성환갑(1981), “〈瘡疹方撮要〉의 漢字音研究”, 중앙대 논문집 25.

손병태 (1989), “〈牛疫方〉의 吏讀文研究”, 영남어문학 제16집.

심재완·조규설 (1966),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 대하여”, 청구대학논문
집 제9집.

안병희 (1977), “〈養蠶經驗攝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研究”, 동양학7, 서울
동양학 연구소.

양주동 (1968), “國史古語彙借字原義考”, 명지대 논문집 제1집.

이기문 (1963), “13세기 중엽의 국어자료”, 동아문화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
소.

이승녕 (1982), 「新羅時代의 表記法 體系에 관한 試論」, 서울: 탐출판사.

정철주 (1988), “新羅時代 吏讀의 研究”, 계명대학교 대학원 博論.